



[금융] KEB하나은행, 사업다변화로 글로벌 강화 06



Life

[유통] 신세계그룹 파트너사와 채용박람회 개최 11



숲속에 온 듯, 비밀의 화원인듯... 외국인도 “윈더풀!”

Q 르포 '봄에 더 인기' 도심속 화원 플라워카페

꽃과 함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봄이 왔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개화 시기가 오지 않아 이달 말까지 꽃 구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멀리 나들이를 떠나 기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비용도 부담스럽다. 이럴 때 도심 속에서 화원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커피 한 잔과 봄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 곳, '플라워카페'다.

◆가드닝 플라워 카페, '벌스가든'

향기로운 꽃내음은 벌들을 유혹하고 사람마저 정취에 빠지게 한다. 지난 14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에 위치한 연남동 플라워카페 '벌스가든'에는 평일 오후의 여유를 찾으러 온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수업을 마치고 찾아온 여대생들, 데이트를 위해 찾아온 커플들, 단체모임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카페 곳곳에 앉아 꽃구경을 하며 담소를 나누느라 바빴다.

특히 벌스가든의 한쪽에 자리한 꽃벽은 알록달록 꽃들로 수놓아져 사진을 촬영하려는 방문객들로 인기가 가장 높았다.

최민영 매니저는 “꽃 벽에는 너무 많은 양의 꽃이 들어가 가능할 수가 없다”며 “워낙 고객들이 좋아해 컨셉에 따라 작업할 드라이플라워의 종류, 색상들을 정하고 작업을 하면서 양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카페 내 테이블은 일본, 중국 그리고 동



플라워카페 '벌스가든'의 계산대와 전경.

플라워카페 2030·관광객에 인기 다양한 차와 함께 꽃·식물 판매도

남아 관광객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카페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 미호(36) 씨는 “일본의 테마카페에 비해 커피가격도 저렴하고 꽃까지 볼 수 있어 좋다”며 “이번 여행에서 여러 테마의 장소를 가봤는데 가장 여행코스로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벌스가든에는 다양한 꽃 말고도 대형 식물들이 카페 입구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기분까지 들게 한다. 이는 뻥뻥한 빌딩 숲 속에 갇혀있던 현대인들이 잠시 자연을 만끽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도 충분했다.

마음에 드는 꽃이 있다면 구매도 할 수 있다.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위치한 2호점 벌스하우스에선 커피와 함께 선물용 꽃도 판매하고 있다. 1층에 꽃집이 따로 있어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꽃과 식물을 직접 주문이 가능하다.

최 매니저는 “주로 봄이 되면 손님들이 꽃을 더욱 많이 구매한다”며 “이 시기에는 형형색색의 꽃을 일상의 공간에 채워두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벌스가든의 김성수 대표는 인터뷰 중 남다른 식물 사랑을 보였다. 그는 “부모님께서도 남대문 꽃도매상가에서 33여 년 가량 꽃집을 운영하셔서 꽃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또 어려서부터 어머니께 꽃꽂이를 배워 꽃을 다루는 일이 즐겁다”고 밝



블룸스토리 매장. /유재희 기자

◆도심 속 비밀의 화원, '블룸스토리'

마포구 성미산로에 위치한 연남동 플라워카페 '블룸스토리'는 SNS에서 20대들의 호응이 좋은 플라워 카페 중 하나다. 블룸스토리의 매장입구에는 푸른 식물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어 행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매장의 문을 열면 장미의 그윽한 향이 손님들을 반긴다. 매장 중앙에 있는 다채로운 꽃과 식물, 넝쿨은 답답한 도심 속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논이로 하여금 머리를 맑게 만든다.

특히 카페 벽면에 위치한 네온사인인 매우이색적이다. 분홍색 네온이 들어와 반짝이는 장미는 마치 한 공간에 카페, 화원 그리고 바(bar)가 공존하는 기분마저 든다.

이에 블룸스토리 강양기 대표는 “장미와 넝쿨을 이용해 신비로운 비밀의 화원 컨셉과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 속의 힐링 공간에서 쉬도록 숲의 컨셉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한 고객 중에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그들은 특별한 공간에 들어온 만큼 매장 실내장식과 디저트 등을 사진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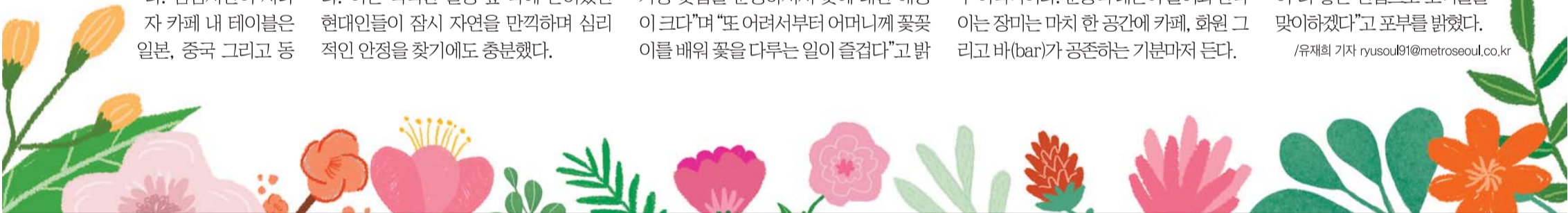
이날 친구들과 블룸스토리에 방문한 최진희(22) 씨는 “일반 카페는 솔직히 공카족이나 일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 힐링이 어렵다”며 “특별한 공간에 어와서 꽃도 보고 맛있는 디저트 먹어 기분이 전환된다”며 밝게 웃었다.

블룸스토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매장 실내장식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 메뉴판에는 직접 그려진 메뉴 그림과 설명이 있다. 이에 강 대표는 “수제 청을 기반으로 하는 음료들과 퓨전티, 조리풍라떼와 같은 이색 음료가 많다”며 “고객님들의 메뉴 이해를 돕고자 카페 매니저가 직접 색연필로 메뉴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갖다 주는 듯한 음료와 디저트는 마치 화분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손님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 사소한 아이템인 쟁반과 테이블 위 촛대도 꽃과 풀로 장식돼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강 대표는 “봄이 되어 많은 분들이 꽃구경과 커피의 여유를 즐기러 오셔서 제마음도 즐겁다”며 “비밀의 화원에 이어서 더 좋은 컨셉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품질 좋은 쌀에 숙성회 올려... 직장인 입맛 사로잡은 초밥

맛있는 메트로

2호선 을지로입구역

우스시계

점심특선, 주변 직장인들에 인기 저렴한 가격에 초밥 즐길 수 있어



점심특선.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88 을지스타몰 옥층 1-4호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9시 30분(월~금), 브레이크타임 오후 2시 30분~5시.(토·일·공휴일 휴무)

서울 지하철역 중 가장 비싼 이름값을 하는 곳은 어딜까.

바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을지로입구역은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유상역명명기 사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27개역 중 계약금(3년 기준) 3억81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이름을 소유한 역 1위 자리에 올랐다.

을지로입구역 외부 풀사인과 내부 승강장 역명판·단일 노선도 등에 이름을 구입한 'IBK기업은행'이 병기되고 있는 이유다.

역 주변에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업 및 대형 오피스빌딩, 롯데백화점, 보신각, 서울광장, 일본정부관광국, 한국은행,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명동성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1일 승차인원은 약 10만5000명 정도다.

을지로입구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진 총 3.8km 길이의 지하상가 을지스타몰에 위치한 '우스시계'는 인

근 직장인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는 수제초밥전문점이다.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점심시간마다 가성비 높은 초밥을 맛보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연출된다.

점심시간 1위 메뉴는 초밥과 우동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심특선(9900원)'이다.

손님들에게 인기 있는 초밥 8점(광어·

연어·새우·문어·송어2·참치·도미포는청어)과 반우동이 한 세트로 나간다.

식사를 주문하면 간단한 샐러드와 따뜻한 죽이 에피타이저로 먼저 나오고 잠시 후 주인공인 초밥과 우동이 등장한다. 초밥에 사용되는 생선은 손질 후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종류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광어의 경우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거친다.

생선과 함께 초밥의 주된 재료인 쌀의 품질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현재는 서해안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신동진 쌀을 사용하는데 일조량이 많아 쌀알이 굵고 밥맛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깔끔하면서도 부담없는 점심을 먹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는 직장인 남승현 씨(46)는 “인근에서 스시를 먹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곳은 저렴하면서도 내실 있게 초밥과 스시를 즐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함께 식사를 마친 한채민 씨(40)는 “주문과 동시에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그만큼 신선도 높은 초밥을 맛볼 수 있어서 좋고, 함께 제공되는 우동 맛도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인기 메뉴는 '알탕(8000원)'이다. 생선뼈를 우려낸 육수에 찹쌀의 맛이 일품인 민태알, 고니, 연두부, 숙작, 팽이버섯 등이 들어가고 숙성 양념과 고춧가루로 맛을 낸다.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에 즐겨 찾는 손님들이 많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초밥 10점에 왕새우튀김, 반우동으로 구성된 '초밥정식(1만4000원)'이다. 점심특선에 초밥 2점과 왕새우튀김을 추가한 것으로 넉넉한 양의 식사를 원하는 손님들의 주문율이 높은 편이다

오후 5시 이후에는 퇴근길 혼잡족 및 소규모 팀 단위의 회식 장소로 다시 분주해진다.

좌석은 16석 규모로 점심시간에는 예약이 불가하지만 저녁에는 예약을 통해 보다 편한 이용이 가능하다.

저녁 모임의 경우 정해진 예산을 미리 얘기하면 메뉴판에 없는 코스 형태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김미영 객원기자 may424@hanmail.net